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동교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41호

창조절 여섯째 주일, 한가위감사주일

2020년 10월 11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생명의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 | 김명숙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주께 감사드리나이다(G. F. Händel)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재우 집사

징울림 **정 세 번 울림**

모임 (*는 일어서서)

***입례찬송** **하늘 나는 새를 보라**(경동찬송 66장) **다함께**
 (깃발, 감사예물 봉헌자, 특송자, 예배 순서 담당자, 인도자 순으로 입장)

***예배부름** **목 사:** 온세상에 알리어라 구원의주 하나님께서 놀라운일 행하셨다
 들판마다 오곡백과 가득하고 집집마다 웃음소리 넘쳐난다
 만백성이 감사하라 생명의주 하나님께 감사기쁨 드리어라
회 중: 주님께서 살리셨다 만백성을 살리셨다 큰은혜로 살리셨다
 꺼져가는 등불같고 상한갈대 같았으나 다시한번 살리셨다
 기뻐하며 감사하세 주님축복 감사하세 주님찬양 할렐루야.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우리주님 하신일이 어찌그리 많으신가
회 중: 천궁에서 높은산에 가득물을 쏟으시니
목 사: 계곡마다 물이흘러 새와짐승 해갈하고
회 중: 들판에는 풀이자라 가축들을 길러내고
다함께: 농사짓는 땅에서는 곡식들이 풍족하다
목 사: 우리주님 하신일이 어찌그리 놀라운가
회 중: 무궁하신 지혜로써 만물들을 지으시니
목 사: 온누리에 가득찬것 아름답고 오묘하다
회 중: 하나하나 살펴보면 감탄사가 절로나서
다함께: 내평생을 다하도록 찬양노래 부르도다. 아멘(시 104편).

경배찬송 **591장**(저 밭에 농부 나가)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골 2:12-13)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응답송 **주여 용서하소서**(경동찬송 38장) **다함께**
 주여 용서하소서 뉘우치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대하 7:14)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온 세상 사람들아(경동찬송 16장) **다함께**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세상 나라들아 주 찬양하여라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40:27-31 **1부: 정초산 집사**

2부: 이권희 집사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어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1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생명을 담은 샘물 같아
마음에 품고 마실 때 마다 새 삶의 희망 솟아나네

서신의 말씀

요한계시록 7:13-17 **1부: 전형주 집사**

2부: 주미영 집사

그 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쬌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2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마음의 병을 고쳐주네
고통에 지친 영혼이라도 다 나아 기뻐 노래하네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서 18:1-8 **목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3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새날을 여는 햇빛 같아
마음 문 열고 맞아들이면 근심과 어둠 사라지네

친교와 소식

공동기도

..... **목사**
..... **다함께**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며 기뻐하신 주님의 창조세계를
우리의 탐욕과 자만으로 파괴한 죄를 고백하오니,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파괴되고 상처입은 이 지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난, 충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지만(시 144:3-4),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베푸신 은혜를 감사, 또 감사드리오니,

은혜의 주님,
 한결같으신 사랑과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이 지구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로,
 이 세상을 주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감사의 고백

중 · 고등부 - 이연우 신우 어린이부 - 이진아 어린이

특송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H. Smart) 박수길 장로, 최승태 집사

설교

“낙심하지 말아야”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성만찬

찬송

228장(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2, 4절 다함께

성만찬 초대

집례자

성만찬 기도

다함께

집례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 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집례자: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회 중: 주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바쳐 드립니다.

집례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 중: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집례자: 창조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
 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전하도록 위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창조세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창조의 질서를 회복 하셨으니,

회 중: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
 합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데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
 으소서.

응답송

거룩 거룩 거룩(경동찬송 4장) 1절 다함께

거룩 거룩 거룩 온 맘 다해 주 찬양 내 맘을 아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23-26 집례자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성만찬 나눔

..... 다함께
(세례 받은 성도들은 제단 앞으로 나와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감사의 기도

..... 다함께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게 하
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이 주님의 영으로 새롭
게 변화되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평화와 기쁨을 위하여 살
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보냄

봉헌과 찬송

*봉헌기도

*보냄찬송

430장(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함께

..... 목사

주님의 기도 다함께

하 늘 에 게 - 신 우 - 리 아 버 지
오 늘 날 우 - 리 모 - 두 에 - 게
우 리 를 시 험 에 들 - 게 마 시 고

이 름 을 거 록 하 게 하 시 오 - 며
일 용 할 양 식 을 주 시 으 - 고
다 - 만 악 에 서 - 구 하 소 - 서

그 나 라 오 - 게 하 시 오 - 며 그 뜻 을 -
우 리 가 이 웃 을 용 서 하 듯 이 우 리 의 -
그 나 라 권 세 와 영 - 광 이 아 버 지 께

땅 에 도 이 뮈 주 소 서
죄 - 도 용 서 하 소 서
영 원 히 있 사 읊 니 다 아 - 멘

*축도

*송영

후주

..... 목사

..... 오르가니스트

다 감사드리자(arr. S. Vaan) 오르가니스트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 ▶공연: 김선아 집사, 정록기 집사(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콜레키움 보칼레 서울 정기연주회, 10월 16일(금)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2. 모임

- ▶당회: 오늘(10월 11일) 오후 1시 30분 경동갤리카페

3. 종교개혁주일 특강

- ▶주제와 강사: “코로나19’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온라인방송일시: 10월 25(주일) 오후 1시 30분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주관: 신도교육위원회(위원장: 김원희 집사)

4. 2020년도 한가위감사절헌금

-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한가위감사절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한가위’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위 / 헌금 예산: 41,000,000원)

5. 다음 주일(10월 18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김남강 장로	1부	황인락 집사 · 성선용 권사	2부	전형찬 집사 · 이복연 집사

■ 예배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신명기 32:12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신명기 32:10-12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박재준 전도사
중 · 고등부	주일 09:30 여혜문화공간	신명기 32:7-14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마가복음서 8:1-8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박선교 목사

다음 주일 말씀

10월 18일(창조절 일곱째 주일)

성 경: 구 약(출애굽기 33:18-23)
서신서(데살로니가전서 1:1-7)
복음서(마태복음서 22:15-22)

설 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채수일 목사

하늘 나는 새를 보라(경동찬송 66장)

1.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하늘계신 아버지가 고이 먹여 주시니
먹고 마실 것을 위해 아무 염려 말아라
2. 들에 피는 꽃을 보라 길쌈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의복보다 더욱 아름답도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고이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생각하고 미리 염려 말아라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하라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1.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2.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의 고운 꽃도 주님의 숨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3.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후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2, 4절)

2.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 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맘 새롭다
4.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선지자 예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가리